

경북,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자금수혈 등 전방위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1년 상환 연장 경영안정자금 100억 긴급 투입 온라인 쇼핑몰 등서 판촉 행사 유통 서비스·택배비 등 지원도

경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산물 판로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지역내 확산으로 경북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줄면서, 청도, 영천을 비롯한 미나리 재배농가와 딸기 농가 등 현장 직거래를 주로 하는 제철 농산물의 판매가 급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 외식자제, 행사 취소 등으로 농식품의 소비감소는 물론 대형 마트,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을 통한 농산물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농가 경영안정과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응하고 농



사이소 면역력 강화 특판전.

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북도에서 조성하고 저리 용자로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을 1년간 특별 상환 연장한다. 금년도 상환예정인 220억 원을 포함 총 1001억 원이 연장 대상으로, 도내 1,772명의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운영자금에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긴급 추가 지원하며, 축산농가의 피해경감을 위해 사료구매 자금도 확대 지원하고 신청기간도 3월말까지 연장해 접수를 받는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홍보에 집중해 나간다.

경북도는 사이버쇼핑몰인 '사이소'를 통해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사과, 흙삼, 도라지 등 면역력강화 식품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30~50%까지 할인된 가격적인 조건으로 판매를 진행하며, 소셜커머스 등 모바일을 통한 판촉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고령농, 영세농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장수집, 운송, 판매까지 유통서

비스를 지원해 판로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환경 농산물 및 농촌융복합산업(6차) 인증업체에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금년부터 시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도 조기에 지원해 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내 가축방역 기관에서 보유중인 방역차량 및 방제기 171대와 유관기관에서 보유중인 방제기 등 총 420대의 방역 장비를 동원해 기차역, 버스 터미널, 전통시장, 체육시설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월부터는 매주 2회씩 '코로나19 박살 경북도 일제방역의 날'을 정해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을 대상·시군 새마을회, 축협 공동방제단 및 군부대 제독차량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소비감소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저품질 과일(사과, 참외) 시장 조기격리도 가격을 안정화시켜 나간다. 농식품 해외 박람회 취소와 바이어 상담

회 지원,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농산물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판촉활동 전개로 수출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객 감소뿐만 아니라 예약된 체험수익 일정마저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은 여행상품 개발과 wifi 스마트설비 설치, 안전시설장비 지원 등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김중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농촌을 찾아오는 방문객이 감소하고 농산물 판매 및 영농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농가피해가 최소화 되고 농산물 판매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12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현지 실사에 나선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버나드 오스트롬 회장 등 팀 브라이언리프 사무총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10년 만에 또 열린다

전남도-순천시 2023년 개최 유치

전남도와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성공했다.

4일 전남도와 순천시에 따르면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는 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상반기 총회를 열고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개최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최종 승인했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과 김병주 순천시 부시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박람회 유치추진단은 지난 2일 AIPH 총회 박람회 추진상황 발표회에 참석했다. 유치추진단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 방향과 지난 2013년 박람회

성과, 국제행사 개최역량 등을 버나드 오스트롬 AIPH 회장을 비롯한 각국의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유치 활동을 펼쳤다. 결과는 3일 개최지 발표에서 전남도와 순천시가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는 쾌거로 연결됐다.

AIPH는 "박람회 개최 이후 정원 문화·산업육성 등 지속가능한 정원정책 실현, 도시발전의 새로운 롤모델로 평가될 것이다"고 밝혔다.

버나드 오스트롬 회장은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정원 역사를 써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성 기자 ysn6313@

"힘내요 경북"... 금복주, 10억 '통 큰 기부'

마스크·방호복 지원 등에 사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에 애쓰고 있는 경북도에 온정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어 화제다.

금복주, 금복문화재단은(대표이사 이원철) 지난 3일 도청을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성금 10억 원을 쾌척했다.

이원철 금복주 대표이사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하게 지원하게 됐다"며 "이후 필요하다면 자원봉사를 위시해 여러 방면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복주, 금복문화재단은 경영환경이



금복문화재단이 이철우(가운데) 도지사를 방문해 성금 10억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북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10억원의 큰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도내 확진자 지원,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 마스크, 손세정제, 방호복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경북=문봉현 기자

광주광역시, 주거환경개선에 10.7억 투입

광주시는 주거환경 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동구(학운2구역), 광산구(도산7동, 서동, 용보촌) 4곳에 총 10억7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되고 개발이 어려운 지역 또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곳을 대상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38억3000만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사업비를 투입해 토지, 부지 등 매입 절차를 거쳐 도로 개설, 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복지센터 설치, 게이트볼장 조성 등을 추진한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광양시 태인동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광양시가 올해 태인동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8월 태인동 용지 마을 일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절차 간소화를 위해 같은 해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에서 선도지역으로 지정받고,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서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은 후 시설설계용역을 발주 완료했다.

태인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용지 마을' 일원에서 안전·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생활환경 조성 사업,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 문화 플랫폼 조성 사업, 골목상권 편의시설 조성 사업 6개 단위사업과 11개 세부사업에 총 135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시행되는 사업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마당 조성 사업'으로, 용지 마을 전통 축제인 큰 줄다리기를 열어 지역주민과 상인, 문화인, 청년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광주=김용환 기자 jiiacecom@

안동시, 코로나19 침체 상권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극복

안동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동사랑 상품권 유통 한도와 특별할인 기간을 늘렸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살리고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안동시는 4일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

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고 특별할인 기간도 늘린다고 밝혔다. 2월 말까지이던 10% 특별할인 기간도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개인 구매대상을 기존 19세 이상 성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구매할 수 있다.

/경북=문봉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8 | 해질 / 18:30

3월 5일 (목) 음력 : 2월 11일

수도권 날씨 **-3~7°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5/8, 동두천 -4/9, 가평 -4/9, 파주 -5/8, 서울 -3/7, 양평 -3/8, 인천 -2/7, 수원 -2/7, 용인 -2/7, 평택 -3/7, 백령도 0/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